

조선 전기의 역사를 기록으로 정리해 볼까요?

수업 목표

인물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할 수 있다.

차시 구성

이 차시는 조선 전기의 역사를 기록으로 정리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전개

- 조선 시대 사관들이 남긴 기록 살펴보기
- 조선 전기의 역사 기록하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예고하기

교과 역량



지도상의 유의점

모둠 내에서 다양한 인물과 문화유산을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도입

1 동기 유발하기

- 이번 주제에서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 조선 전기의 역사를 공부하였습니다.
- 조선 전기의 인물 중 인상 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일본군을 물리친 이순신입니다.
- 조선 전기의 문화유산 중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요?
- 신사임당이 남긴 「초충도」입니다.

2 학습 문제 확인하기

조선 전기의 인물과 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해 봅시다.



1

조선 전기의 역사를 기록으로 정리해 볼까요?

2

이 시간에는 인물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할 수 있다.

3

조선은 건국 이후 많은 노력으로 정치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두 차례의 전쟁을 극복하였다. 조선 전기의 역사를 조선 시대의 사관처럼 기록으로 남겨 정리해 보자.



76

전개

3 조선 시대 사관들이 남긴 기록 살펴보기

활동 안내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전기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록을 남겨 본다.

활동 방법

『조선왕조실록』에 대해 알아본 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주제를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간단한 글로 정리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하여 기록을 완성하게 한다. 이후 모둠원들이 완성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책으로 엮어 보도록 한다.

- 조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누가 기록하였나요?
- 사관이 기록하였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조선 시대의 사관처럼 조선 전기의 역사를 기록해 볼 것입니다. 조선 시대 사관들이 남긴 기록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말해 봅시다.
- 사관의 개인적인 평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이렇게 해요

1 조선 시대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확인해 봅니다.

조선왕조실록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검색하면 그것과 관련된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2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기록에서 다루고 싶은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정합니다.

3 선택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을 준비합니다.


4 조사한 내용을 간단한 글로 정리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기록을 완성합니다.

5 모둠 친구들이 완성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책으로 엮습니다.

날짜 1597년 9월 16일(음력)

제목 이순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내용
이순신은 명량 해협(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에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배로 뛰어난 작전을 펼쳐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나의 평가
조선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옥에 갇혔던 이순신은 다시 장군으로 임명되어 일본군을 물리쳤다. 이 승리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스스로 확인해요

- *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나 문화유산을 선택했나요? ☐ 예 ☐ 아니요
- * 선택한 인물이나 문화유산에 관한 내용을 기록으로 잘 정리했나요? ☐ 예 ☐ 아니요
- * 완성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때 친구들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나요? ☐ 예 ☐ 아니요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76~77쪽에서는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하는 기록물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그림 해설

교과서 76쪽의 그림은 『조선왕조실록』이 제작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여러 자료에 있는 기록을 모아 실록을 편찬하였다.

학습 준비물(교수·학습 자료)

수행 평가지(지도서 283쪽)

이런 수업 어때요?

가상 면담 학습 조선 전기의 인물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 가상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지도서 271쪽 자료 5)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어떤 인물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가요?
- 어떤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가요?

4 조선 전기의 역사 기록하기

-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어떤 인물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남길지 정해 봅시다.
-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이순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 선택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그것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준비해 봅시다.
- 이순신 동상을 보고 명량 해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 조사한 내용을 간단한 글로 정리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붙여 기록을 완성해 봅시다.
- 이순신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순신에 대한 기록을 완성하였습니다.
- 모둠 친구들이 완성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책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도 + 사회 + 생각 을 통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기록을 중시하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

정리

5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친구들이 남긴 기록 중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나요?
- 신사임당이 남긴 예술 작품에 대한 기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광재우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스스로 확인해요** 를 점검해 봅시다.
- **즐거워 정리해요** 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6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1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가하기

평가 관점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할 수 있나요?	상	적절한 인물과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할 수 있다.
		중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할 수 있다.
		하	조선 전기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6쪽은 주제와 관련한 읽기 자료로 구성하였다. 조선의 재상이었던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경험한 일을 기록한 『징비록』에 대해 알아보며 조선이 얼마나 기록을 중시하였으며, 기록물이 지닌 가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림 해설

교과서 78쪽의 그림은 징비록에 담긴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 장면은 선조가 의주로 피란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이다

사회 생각

후손을 위한 반성의 기록, 『징비록』

조선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높은 관리였던 유성룡은 일본군이 물러간 후 전쟁 때 경험한 일을 기록하여 『징비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징비록』에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전쟁 당시 조선이 어떤 실수를 했고 조선 백성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징비(懲毖)’는 ‘지난 일을 경계하여 앞날의 걱정거리를 조심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일을 반성하고 후손에게 알려 앞날을 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성룡처럼 슬픈 기억도 잊지 말고 기록해 봅시다. 언젠가 우리의 일기도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징비록』(한국 국학진흥원)



78

사회 생각

수업 방법 및 활용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재상이었던 유성룡이 전쟁 때 경험한 일을 기록으로 남겼으며, 일본군이 물러간 후 그것을 엮어 『징비록』이라는 책을 만들었음을 알도록 한다. 이때 『징비록』의 일부 내용을 추가로 인용해도 좋다.

자료 더하기

유성룡(1542~1607)

유성룡은 25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서를 거쳐 1592년에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이후 그는 전란에 휩싸인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 데 전심전력하였다. 말년에는 북인으로부터 주화론자라는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는 정치적 고난을 겪기도 하였다. 파직된 뒤에는 향리에서 『징비록』, 『신중록』 등을 지었다.

- 한국 문화유산 답사회, 『답사 여행의 길잡이 10: 경북 북부』

『징비록』에 기록된 임진왜란의 치욕

1593년 1월 말, 명군 제독 이여송은 조선의 도체찰사 유성룡, 호조판서 이성중, 경기도 관찰사 이정형 등을 개성에 있던 자신의 군진으로 호출하였다. 이여송은 유성룡 등 조선 신료들을 무릎 꿇린 뒤 군법을 집행하겠다고 길길이 뛰었다. 유성룡 등이 군량 조달과 공급을 태만히 하여 명군 장병들을 굶주리게 하였다는 것이 죄목이었다. 유성룡은 이여송에게 연신 사죄하면서 눈물을 떨구었다.

당시 조선의 재상이었던 유성룡에게 명군의 야전 사령관이 곤장을 치겠다고 덤빈 것이다. 눈물을 흘리는 유성룡의 모습이 민망하였는지 이여송은 형장 집행을 멈추었다. 하지만 유성룡은 훗날 『징비록』에서 “나랏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라고 당시의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 『중앙일보』, 2021. 8. 27.

- 1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문제의 답을 빙고판에 쓰고 친구들과 빙고 놀이를 해 봅시다.



- 2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색칠해 봅시다.

- 조선의 건국 과정과 한양이 도움이 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나요? ☆☆☆
- 조선 전기의 발전과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나요? ☆☆☆
-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극복한 과정을 말할 수 있나요? ☆☆☆

(☆☆☆ 매우 잘함 ☆☆☆ 잘함 ☆☆☆ 보통)

정답 · 160쪽

79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79쪽은 이번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 빙고 놀이를 하도록 구성하였다. 빙고 놀이를 하며 주제에서 공부한 인물과 문화유산을 반복해서 상기할 수 있다.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조선 전기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즐겁게 정리해요

- 1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문제의 답을 빙고판에 쓰고 친구들과 빙고 놀이를 해 봅시다.

활동 방법

- 교과서 79쪽에 제시된 문제를 풀어 보고, 그 정답을 빙고판에 적어 보도록 한다.
- 순서를 정하여 빙고판의 단어를 말하고 ○표를 하도록 한다. 친구들이 말한 단어에도 ○표를 한다.
- 가로, 세로, 대각선 포함하여 세 줄이 먼저 완성되는 사람은 "빙고!"라고 외치게 한다.
- 제일 먼저 "빙고!"라고 외친 사람이 승리한다. 승리한 학생을 제외하고 계속 빙고 놀이를 진행해도 좋다.

정답

- | | | | | |
|--------|--------|--------|---------|---------|
| 1. 이성계 | 2. 한양 | 3. 세종 | 4. 훈민정음 | 5. 양부일구 |
| 6. 일본 | 7. 이순신 | 8. 광해군 | 9. 삼전도 | |

- 2 이 주제에서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색칠해 봅시다.

- 조선의 건국 과정과 한양이 도움이 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이후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후 정몽주 등이 제거되자, 이성계는 왕위에 올라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 조선 전기의 발전과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세종 대에는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 조선 전기 여성 중 신사임당과 같은 일부 양반 여성은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극복한 과정을 말할 수 있나요?
 -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광재우 등이 활약하였습니다.
 -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와 신하들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에 맞섰습니다.



교수·학습 참고 자료

자료 1 『조선왕조실록』의 편찬

교과서 76쪽

조선 시대의 실록 편찬은 한 왕이 승하하고 다음 왕이 그를 계승하여 즉위한 후에 시작되었다. 조정에서 실록 편찬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임시로 실록청이 설치되고 총재관(總裁官) 이하 도청(都廳)과 각 방(房)의 관원들이 임명되었다. 실록청이 설치되면 전국에 사초(史草) 납부령이 내려졌다.

실록의 편찬은 대체로 3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춘추관의 시정기 등 각종 자료 중에서 중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하여 초초(初草)를 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도청에서 초초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초(中草)를 작성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초의 잘못을 재수정하는 동시에 체제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정초는 바로 인쇄의 대본이 되었다. 실록 편찬에 이용되는 자료는 춘추관 시정기와 전왕 재위 시의 사관들이 각자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사초를 비롯하여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이 동원되었다. 또한 개인의 일기나 문집 자료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록 편찬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관들의 사초였다. 사초는 그 내용이 보안을 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기록한 사관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국왕을 포함한 누구도 열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사초를 기록하고 보관한 사관 자신들도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때때로 사초의 내용이 누설되어 참혹한 필화를 초래한 일도 없지 않았다.

실록이 완성되면 편찬에 사용하였던 기본 자료들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 등은 기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세초(洗草)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부터 종이의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세초는 대부분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완성된 실록은 특별히 건축·관리되는 사고(史庫)에 비장하였다. 이는 국왕이나 대신들도 사사로이 열람할 수 없었다.

- 조선왕조실록 누리집, 「실록 편찬과 관리」

자료 2 『승정원일기』

교과서 76쪽

『승정원일기』는 1623년부터 1910년까지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행정 사무·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지이다. 조선 초부터 기록되었으나, 인조 대 이전의 것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등으로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1623년부터 승정원이 폐지되는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의 『승정원일기』 3,045책과 그 이후의 『승선원일기』 4책, 『궁내부일기』 5책, 『비서감일기』 41책, 『비서원일기』 115책, 『규장각일기』 3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월별로 작성하였고, 각 권 서두에 월별권강(月別權綱)·소대(召對)·개정(開政) 및 내전(內殿)의 동정을 기록하였다. 이어 매일의 승지 및 주서(注書)의 명단, 그 중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 실태, 끝으로 승정원의 업무 현황, 왕 및 내전(內殿)의 문안, 왕의 경연, 승정원의 인사 관계, 각 분방(分房)을 통한 품계(稟啓)와 전지(傳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승정원에서 매일 취급한 역대 국왕들의 일과, 지시·명령, 각 부처의 보고, 각종 회의 및 상소 등이 모두 전제되어 있다.

현존하는 『승정원일기』에는 보수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나, 최선을 다한 보수였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왕명의 출납’이라는 임무만으로도 승정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만, 승정원의 기능은 보다 폭넓었다. 『육전조례』·『은대조례』·『은대편고』 등을 통해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왕명의 출납, 즉 왕명을 밑으로 전달하고 하의(下意)를 위로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 ② 경연(經筵)·입시(入侍)에 참석하고 추국(推鞠)에 관여하였다. ③ 관리의 임면과 상벌 및 과시(科試), 그리고 병무(兵務)에까지 관여하였다. ④ 의례적인 일, 즉 국가와 궁중의 제향(祭享), 국왕의 동가(動駕)와 대외적 사대·교린에도 참여하였다. 이처럼 승정원은 국가의 광범한 공사와 의례적인 일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승정원일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1961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초서(草書)로 쓰인 『승정원일기』를 해서(楷書)로 고쳐 쓰고 구두점을 찍어서 출판하여 이용하기에 편하게 하였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누리집, 「승정원일기」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친필 일기이다. 이것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부터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치른 노량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앞두고 전사하기 직전인 1598년 11월까지 거의 날마다 적은 기록이다.

『난중일기』는 군사령관이 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서술한 기록으로서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개인의 일기 형식으로 쓰였지만 매일의 교전 상황이나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 소회, 그리고 당시의 날씨나 전장의 지형, 서민들의 생활상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난중일기』는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하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애송하는 다수 시도 포함되어 있어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다.

— 유네스코와 유산 누리집, 『난중일기(亂中日記)』: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陣中日記)

임진왜란을 기록한 3대 저서로 『난중일기』, 『징비록』과 함께 오희문의 『쇄미록』을 꼽는다. ‘쇄미록(瑣尾錄)’은 ‘보잘것없이 떠도는 자의 기록’이라는 뜻이다. 오희문은 임진왜란 당시 토목 일을 맡은 관리였다. 그는 지방에 사는 외거 노비들에게 공물을 받을 목적으로 1591년 11월에 한양을 떠났다가 임진왜란을 맞았다. 이후 1601년에 한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9년 3개월 동안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기를 썼다. 중앙 정부나 전투 현장이 아닌 후방에서 민초들이 겪는 전란 중의 고초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16세기 조선의 일상생활사, 풍속사, 사회·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여겨진다.

— 『시사 저널』, 2020. 12. 30.

수업 효과

조선 전기의 인물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때 가상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조선 전기의 인물과 당시의 사건에 대한 경험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수업 방법

- ① 가상 면담을 할 역사적 인물을 정하도록 한다.
- ② 고른 인물에 대해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생애와 면담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③ 선택한 인물의 입장에서 면담 질문에 답변해 보도록 한다.
- ④ 완성한 가상 면담 질문지의 내용을 기록의 형태로 정리해 보도록 한다.

가상 면담 질문지 예시

조선 전기의 인물 가상 면담 질문지	
면담할 인물	
인물의 생애	
면담 질문	예상 답변

추천 도서 및 영상, 관련 누리집

-  유성룡, 김홍식 역, 『징비록』, 서해 문집, 2003.
-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 「역사 채널 e: 기록의 나라」
-  한국 교육 방송 공사(EBS), 「역사 채널 e: 만 년 후를 기다리는 책」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